

영유아교사 인성에 관한 연구*

- 근무기관, 교육경력, 자격, 교육활동 만족도를 중심으로 -

강경자** · 정현숙***

본 연구는 영유아교사의 근무 기관, 교육경력, 자격에 따른 교직인성과 영유아교사 인성의 차이를 분석하고, 교육활동 만족도가 교사 인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 경기, 인천 지역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재직 중인 교사 30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SPSS 27.0을 활용하여 t -검정, 일원분산분석,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근무 기관에 따른 교직인성과 영유아교사 인성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교육경력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특히 10년 이상 경력 교사의 인성 점수가 가장 높고, 5~10년 미만 집단은 전반적으로 가장 낮았다. 둘째, 교원자격만 보유한 교사는 보육교사 자격만 보유한 교사 및 두 자격을 모두 보유한 교사보다 교직인성과 영유아교사 인성의 하위요인(예: 도덕성, 학생에 대한 열정, 존중, 인간관계, 자기조절 등)에서 유의하게 더 높은 점수를 보였다. 셋째, 교육활동 만족도는 교직인성과 영유아교사 인성 모두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그 영향력은 교사의 경력과 자격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본 연구는 교직인성과 영유아교사 인성을 통합적으로 측정하여 교사 인성을 다차원적으로 진단하였으며, 경력 및 자격에 따른 차별화된 인성교육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유보통합 시대 통합교사 양성을 위한 교직과정 및 차별화된 인성교육 방향 수립의 필요성을 제안한다.

주제어 : 교직인성, 영유아교사 인성, 교육경력, 영유아교사 자격, 교육활동 만족도

논문 투고일: 2025. 04. 29.

최종심사일: 2025. 06. 09.

게재확정일: 2025. 06. 20.

* 본 논문은 신구대학교 교원전공역량강화사업(2025-교006)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 결과입니다.

** 신구대학교 유아교육학과 교수

*** 신구대학교 유아교육학과 교수

Corresponding Author: Chung, Hyun Suk, 211 West Building, 377, Gwangmyeong-ro, Jungwon-gu, Seongnam-si, Gyeonggi-do, 13174. E-Mail : hskchung08@shingu.ac.kr

I. 서론

현대 사회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정보화와 지식 산업화의 가속화에 따라 개인주의와 경쟁 또한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 속에서 인간 존중의 가치 약화, 자살, 학교폭력, 집단 따돌림 등의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도덕성과 인성 함양에 대한 요구가 더욱 증가하고 있다(손봉호, 2010). 그러나 인성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의 정신 건강 문제와 우울증 등 심리적 어려움이 심각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초등교사의 극단적인 행동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보도되고 있다(KBS, 2025). 이러한 상황은 교육 현장에서 교사의 심리적 안정과 인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일깨우고 있다. 교사의 우울증과 정신적 문제는 그 자체로 심각한 사회적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이러한 문제가 인성교육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보다 체계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교사 인성에 대한 지속적인 진단과 그에 따른 교육적 지원이 필요하다.

영유아는 발달 특성상 모방이 강하기 때문에, 교사는 영유아에게 중요한 모델로 작용한다. 따라서 영유아교사의 인성이 긍정적이고 건강할수록, 영유아에게 보다 나은 교육적 환경과 정서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영유아교사는 영유아와 가장 밀접하게 상호작용하는 존재로서, 영유아의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 관계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구미향, 2017). 따라서 바람직한 인성을 갖추는 것은 필수적이다. 특히 영유아기 교사는 다른 학령기의 교사와 비교할 때, 인격 형성의 기초를 마련하고 전인적 발달 및 교육의 질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김호순, 2016), 이 시기의 교사 인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전채선, 2011).

이러한 사회 변화로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한 교육부는 2015학년도부터 교원양성기관에서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를 2회 이상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교직과정 내 인성교육 관련 과목을 신설하는 등의 제도적 조치를 마련하였다(교육부, 2014). 또한, 2015년 인성교육진흥법을 시행하여 8가지 핵심 덕목(예절, 효도,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에 대한 교원 연수를 의무화하였다(교육부, 2015). 이는 교사 인성의 중요성이 제도적으로 강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2023) 조사에 따르면 2022년 아동학대 건수는 2018년에 비해 약 13.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치는 인성교육의 제도적 강화와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교육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특히 영유아기는 성격 형성과 사회적 발달의 기초가 형성되는 시기로, 이 시

기에 교사는 단순한 지식 전달자를 넘어 정서적 지지자이자 인격적 모델로서 영유아의 정서 발달과 사회적 관계 형성에 핵심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교사의 인성이 영유아의 정서 안정과 사회적 기술 습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영유아교사 인성에 대한 체계적인 진단과 실천 중심의 교육이 보다 절실히 요구된다(김향미·김덕선, 2016; 정명자, 2016; 조운주, 2014).

인성은 인간의 성품과 성향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성격’, ‘인격’, ‘품성’ 등의 의미를 내포한다. 사전적으로는 ‘사람의 성질과 품격’, 즉 ‘사람의 성품’으로 성질은 마음의 바탕이고, 품격은 사람 됨됨이라고 할 수 있다(손진희, 2008). 교육 현장에서 교사의 인성은 단순한 성품과 성향을 넘어, 교육적 태도, 윤리의식, 관계 역량 등을 포함하는 핵심 역량으로 간주된다.

특히 영유아교사에게 요구되는 인성은 크게 교직인성과 영유아교사 인성 두 가지 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다(강경자·정현숙, 2024). 교직인성은 교사가 전문적인 역할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직업적 책임감, 윤리적 태도, 도덕성 및 전문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김근혜, 2020; 최미정, 2010), 이는 교사의 전문성과 직업윤리의 기반이 된다. 영유아교사는 단순히 지식을 가르치는 존재가 아니라, 영유아의 전인적 발달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므로, 교직인성은 교사로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기본적 요소로 간주된다(박수진, 2009; 서현아·김희정, 2019; 정윤경, 2017). 영유아교사 인성은 교사가 영유아와의 관계에서 발휘하는 공감 능력, 대인관계 능력, 정서적 안정성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인간적인 특성을 반영한다(정명자, 2016). 이는 영유아기 아동이 감정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있기 때문에, 교사의 태도와 감정이 영유아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이유이다. 따라서 교직인성은 교육적 신념, 윤리적 의식, 책임감, 공정성, 도덕성, 소명감 등 교사로서 요구되는 인성을 의미하며, 영유아교사 인성은 여기에 사랑과 신뢰, 공감, 인내심, 정서적 안정, 영유아 발달 단계에 적절한 지원 등 영유아교사로서 필요한 특성들이 추가된 개념이라 할 수 있다(강경자·정현숙, 2024; 황해익·김은정, 2015). 이처럼 교직인성과 영유아교사 인성은 각각 교사로서의 직업적 책임과 인간적 관계 형성 능력을 반영하는 상보적인 요소로, 교사 인성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진단하기 위해서는 두 인성 요소를 함께 고려하는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계는 다음과 같이 간결하게 표현할 수 있다.

$$\begin{aligned} \text{교사 인성(Teacher Personality)} = \\ \text{교직인성(Teaching Character)} + \text{영유아교사 인성(Early Childhood Teacher Personality)} \end{aligned}$$

교사 인성은 교육현장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로 작용한다. 교직인성과 영유아교사 인성은 각각 교사의 직무 전문성과 관계 중심적 역량을 대표하며, 교사효능감, 직무만족도, 행복감 등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밝혀졌다(강은주·이수경, 2017). 교직인성은 영유아에게 교육적 안정성과 일관성을 제공하며, 영유아교사 인성은 감정적 지원과 긍정적인 모델을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정미선·채영란, 2023). 영유아교사의 인성은 단순한 개인적 성향을 넘어, 교육 현장에서의 실천력과 교수 효과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높은 인성을 가진 교사는 교사-유아 간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촉진하고(김선희, 2017; 박지혜·도미향, 2023; 최미곤·황인옥, 2016), 유아의 권리를 존중하는 교육 실천에 기여하며(서현중, 2023; 심정선, 2011; 정은경·도미향, 2022), 궁극적으로 유아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영유아교사의 교직인성이 높을수록 교사효능감과 직무만족도가 향상되고, 교직윤리 의식도 강화된다는 연구 결과가 제시되었다(전홍주·권조현·변길진, 2018; 조경희·변미옥·이종임, 2022; 최은진, 2008; 황선영, 2016). 이러한 인성 요인은 교사의 내적 동기와 직업적 책임 의식을 고취시키며, 현장에서의 실천역량을 증진시키는 토대가 된다.

영유아교사의 인성은 영유아의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 기술에 영향을 미치며, 교사의 긍정적인 태도와 가치관은 교육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교사의 공감 능력과 행복감은 교사-유아 상호작용과 놀이 지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김보라·오재연, 2022; 박주미, 2016; 변인화, 2019; 이선우·오재연, 2022; 이혜진, 2019; 이혜진·이수경, 2020), 영유아 권리 존중의 실천에도 기여하고 있다(강인숙·이희경, 2016). 즉, 영유아교사의 교직윤리 인식이 높을수록 정서 조절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며, 영유아의 권리를 존중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서현중, 2023; 심정선, 2011). 이러한 교직윤리 의식은 교사의 교직전문성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전홍주 외, 2017), 교육 현장에서의 역할수행 증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박수진, 2009; 서현아·김희정, 2019; 황선영, 2016). 특히 교직윤리 의식은 교직인성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핵심 요소로, 유아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해야 하는 유아교육 현장에서 실천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따라서 실천력을 함양하고 역할수행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바른 교직인성을 기반으로 교직윤리 의식을 고취하고, 높은 교사효능감과 행복감을 지닌 영유아교사를 양성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체계적인 교직인성 교육의 도입이 요구된다(김응자, 2023; 서현아·김희정, 2019; 유서연, 2021).

교사 인성의 중요성을 다룬 연구들(조숙영·이용주, 2023; 최미곤·황인옥, 2016)은 보육교사의 높은 인성이 교수효능감과 자신감을 향상시키고, 심리적 소진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그 결과, 교사는 안정된 정서 상태에서 유아와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유

지하며, 아동학대 예방 행동을 실천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교사 인성은 유아 교육 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다양한 요인에 의해 저해되기도 한다. 영유아교사는 교육 현장에서 직무스트레스에 자주 노출되며(박지영, 2016), 그중에서도 초임 교사의 경우에는 예기치 못한 교육 상황에서 발생하는 분노나 좌절 등 부정적 감정을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역량이 특히 요구된다(김순환·전섫별, 2010). 또한, 영유아교사는 인성 덕목을 실제 현장에서 실천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이영림, 2017), 보육교사는 경력과 연령에 따라 역할수행에서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사 발달단계에 따른 차이를 반영한 맞춤형 접근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연구도 진행 중이다(이승미·윤미숙·조소진, 2023).

이러한 문제는 예비교사뿐만 아니라 초임 영유아교사를 대상으로 한 인성교육 강화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며(정윤경, 2015), 경력 교사들에게도 자기평가를 통해 초임교사에 대한 기대 수준을 점검하고, 자신의 인성을 재확인하는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한다(이용주·조숙영·2020; 이은정·이소현, 2019). Katz(1972)는 유아교사의 발달단계를 생존 - 보강 - 갱신 - 성숙의 4단계로 구분하며, 교사 발달단계별 연수와 교육의 차별화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일정 경력을 갖춘 교사가 심리적 안정감에 머물러 인성 함양과 역할수행의 발전이 정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주기적인 교사 인성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더불어, 최근 유보통합 정책의 추진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의 자격 및 교육과정 통합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으며(김혜금, 2024), 유치원 교사와 보육교사의 자격 차이를 줄이면서 교직과목을 이수하도록 함으로써, 전문적이고 감성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교사 양성이 중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이귀옥·한수진, 2023). 이는 유보통합 시기에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여 교육과 보육의 질을 높이고, 만 0 - 5세 영유아에게 일관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정책적 흐름과 맞물려, 영유아교사 자격 기준에 대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시사한다(김혜금, 2024; 이현선·이윤진·이일주, 2015). 유치원 교사와 보육교사의 자격 차이를 줄이는 동시에 교직과목 이수와 인성교육을 강화한다면, 교육과 보육의 경계가 점진적으로 완화되고, 교사들이 더욱 전문성을 갖추고 인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영유아교사 인성교육 실태 조사 연구(김은설, 2016)에 따르면, 현재 유치원 교원연수와 보육교사 보수교육에서 인성교육은 충분히 체계화되어 있지 않아, 보다 실천적이고 지속 가능한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영유아교사들은 유아에게 바람직한 인성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식하고 있으나, 자신의 인성을 함양하고 실천하는 데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유아 인성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교사를 위한 맞춤형 인성교육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이영림, 2017; 최은주,

2022). 영유아교사가 자신의 인성을 인식하고, 인성 함양이 행복감 증진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는 통합적인 인성에 대한 이해와 실천적인 태도를 바탕으로 교육 현장에 긍정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자기성찰 중심의 인성 교육 프로그램인 '영유아교사를 위한 통합적 인성 함양 프로그램'이 제안된 바 있다(유주연·김순환, 2015). 이 외에도 예비 유아교사를 대상으로 한 감사 프로그램(박희숙·김보영, 2024), 현직 보육교사를 위한 마음성장 프로젝트(한국보육진흥원, 2017) 등 다양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된 사례가 있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은 단기적 운영에 그치거나 현재는 실행이 미비한 실정이며, 전체 인성교육 체계가 충분히 정착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영유아교사의 인성 함양을 위한 지속 가능하고 현장 친화적인 맞춤형 인성교육 프로그램이 보다 다양하게 개발되고, 체계적으로 정착될 필요가 있다. 교사 인성교육의 실행력과 제도화를 높이려면, 단순히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교사 인성의 실질적인 함양을 위해 필요한 교사의 인성 특성과 교육적 요구가 교육경력과 자격 등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먼저 진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교사 인성에 관한 연구동향 분석(조숙영·이용주, 2019; 최현미, 2022)에 따르면, 예비 및 현직 영유아교사를 위한 인성 척도 개발 연구가 지속되어 왔다(김경령·서은희, 2014; 김은설·김길숙·이민경, 2015; 김하연, 2021; 전재선, 2011; 조운주·최일선, 2018; 전재선·최종욱, 2012). 김경령과 서은희(2014)가 개발한 척도는 예비교사가 영유아를 가르치는 데 필요한 인성을 '보편적 인성'과 '교직인성'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보편적 인성의 하위요인으로 자기조절, 사회성, 도덕성, 교직인성에는 소명의식, 학생에 대한 열정, 교육적 신념 등이 포함된다. 한편, 영유아교사의 인성을 측정하기 위한 김성원과 신정애(2019)가 개발한 척도는 존중, 인간관계, 배려와 협력, 자기조절, 성실 등 현장 실천 중심의 인성 특성을 하위 요인으로 제시하고 있다. 두 척도는 구성의 초점에 있어 차이를 보인다. 교직인성 척도는 교사의 소명의식, 교육적 신념, 윤리의식 등 가치 중심의 교직전문성을 구조화한 반면, 영유아교사 인성 척도는 보다 실천적이고 교육현장에 기반한 인성 특성을 중심으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척도들은 교사의 인성을 진단할 뿐 아니라, 인성과 관련된 다양한 교육적 요인에 관한 연구에 활용되고 있으며, 나아가 교사 인성 발달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에도 기여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연구(강은주·이수경, 2017; 윤현정, 2021; 이수연, 2017)는 교사 인성이 교육 성과, 교직 수행, 직무만족도 등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교사 인성에 영향을 미치는 배경 요인, 특히 교육경력과 자격에 따른 차이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제한적인 실정이다. 이수연(2017)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교사의 경력과

자격 등급이 높을수록 인성과 직무수행 수준이 긍정적으로 나타난다고 보고하였으며, 강경자와 정현숙(2024)은 예비 영유아교사를 대상으로 교직인성과 영유아교사 인성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하지만, 현직 영유아교사를 대상으로, 기존의 단일 인성 진단 도구에서 벗어나 교직인성과 영유아교사 인성을 통합적으로 측정하고, 교육경력 및 자격에 따른 인성의 차이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매우 드문 실정이다.

또한 선행연구들(강은주·이수경, 2017; 이수연, 2017; 신정애·김성원, 2019; 정미선·채영란, 2023; Bloom, 2010)에 따르면, 교사 인성과 직무만족도는 교사효능감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이며, 인성의 하위 요인(예: 인간관계, 성실성, 영유아에 대한 사랑과 이해, 도덕성, 봉사정신, 인내심 등)이 높을수록 교사효능감이 향상되는 경향이 있음이 보고되었다. 또한, 직무만족도의 하위요인인 복지후생, 대인관계, 직무 자체에 대한 만족은 교사 인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교사 인성은 직무환경, 스트레스 수준, 유아와의 상호작용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밝혀졌으며(최미곤·황인옥, 2016), 이는 교사의 교육적 경험과 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인성 발달과 직접적으로 연관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교사의 인성 특성과 교육적 요구가 어떠한 조건(예: 교육경력, 자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진단은 인성교육 대상자별로 차별화된 접근을 가능하게 하며, 개인별 인성 역량에 맞는 교육과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기초 자료가 된다. 특히 교육활동에 대한 교사의 만족도는 교사가 인식하는 직무환경과 역할 인식에 기반한 심리적 지표로서, 교사 인성의 향상 가능성과 교육적 개입의 필요성을 예측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교사 인성 발달 과정에서 교육경력과 자격 요인이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위에 언급한 교직인성 척도(김경령·서은희, 2014)와 영유아교사 인성 척도(김성원·신정애, 2019)를 영유아교사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는 영유아교사의 교육경력 및 자격 요건에 따라 교직인성과 영유아교사 인성의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분석하고, 더 나아가 교사의 교육활동 만족도가 인성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함으로써, 영유아교사 인성교육과 연수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실천적 방향과 기초자료를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구 문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 연구문제 1. 영유아교사의 근무 기관에 따라 교직인성과 영유아교사 인성에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2. 영유아교사의 교육경력에 따라 교직인성과 영유아교사 인성에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3. 영유아교사의 보유 자격에 따라 교직인성과 영유아교사 인성에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4. 영유아교사의 교육활동 만족도는 교직인성과 영유아교사 인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24년 9월 20일부터 2025년 1월 24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서울, 경기, 인천 지역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재직하고 있는 유치원교사 163명과 보육교사 159명, 총 322명이 연구에 참여 하였다. 자료 수집을 위해 '영유아교육기관 기관장에게 연구의 취지와 목적을 설명한 후, 기관장이 교사에게 온라인 설문 링크를 전달하여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참여자 중 보유 자격 여부를 명시하지 않은 9명과 교사 재직 경력이 유치원 정 교사 1급 자격 취득에 필요한 최소 경력 기간에 미치지 못한 5명의 자료를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최종 연구 분석에 포함된 유치원교사 154명과 보육교사 154명, 총 308명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교육경력에 따른 분포는 3년 미만 교사 58명(18.8%), 3~5년 미만 42명(13.6%), 5~10년 미만 76명(24.7%), 10년 이상은 132명(42.9%)으로 나타났다. 교직 이수 여부에 따라 교직을 이수한 교사는 209명(67.9%), 이수하지 않은 교사는 99명(32.1%)이었다. 자격별로는 영유아교사 308명 중 유치원교사 자격만 보유한 교사는 35명(11.4%), 보육교사 자격만 보유한 교사 99명(32.1%),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 자격 2종을 보유한 교사는 174명(56.5%)으로 확인되었다.

<표 1> 영유아교사의 일반적 특성: 근무기관 유형, 교육경력, 및 자격 보유 현황 (N=308)

구분		대상 인원 (명) 백분율 (%)	교육경력				유치원교사 자격증		
			3년 미만	3~5년 미만	5~10년 미만	10년 이상	유치원 1급	유치원 2급	해당없음 -보육교사 자격만
교육경력		308 100%	58 18.8%	42 13.6%	76 24.7%	132 42.9%			
대상 인원(명)		308	58	42	76	132	103	106	99
백분율(%)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근무 기관 유형	어린이집	154 50%	29 50%	20 47.6%	38 50%	67 50.8%	6 5.8%	49 46.2%	99 100%
	유치원	154 50%	29 50%	22 52.4%	38 50%	65 49.2%	97 94.2%	57 53.8%	0 0%
유치원 교사 자격	유치원 1급	103 33.4%		6 14.4%	35 46.1%	62 47.0%			
	유치원 2급	106 34.4%	39 67.2%	27 64.3%	14 18.4%	26 19.7%			
	해당없음 -보육교사 자격만	99 32.1%	19 32.8%	9 21.4%	27 35.5%	44 33.3%			
	보육교사 1급	155 50.3%	6 10.3%	10 23.8%	41 53.9%	98 74.2%	38 36.9%	39 36.8%	78 78.8%
보육 교사 자격	보육교사 2급	113 36.7%	45 77.6%	25 59.5%	28 36.8%	15 11.4%	37 35.9%	57 53.8%	19 19.2%
	보육교사 3급	5 1.6%	2 3.4%	0 0%	0 0%	3 2.3%	3 2.9%	0 0%	2 2%
	해당없음 -유치원교사 자격만	35 11.4%	5 8.6%	7 16.7%	7 9.2%	16 12.1%	25 24.3%	10 9.4%	0 0%
	자격 1종	134 43.5%	24 41.4%	16 38.1%	34 44.7%	60 45.5%	25 24.3%	10 9.4%	99 100%
자격 보유	자격 2종	174 56.5%	34 58.6%	26 61.9%	42 55.3%	72 54.5%	78 75.7%	96 90.6%	0 0%
	이수	209 67.9%	39 67.2%	33 78.6%	49 64.5%	88 66.7%	103 100%	106 100%	0 0%
교직 이수	미이수	99 32.1%	19 32.8%	9 21.4%	27 35.5%	44 33.3%	0 0%	0 0%	99 100%

2. 연구도구

1) 교직인성 자기점검 진단 도구

본 연구에서는 김경령과 서은희(2014)가 개발한 ‘교직 인성 자기점검 도구’로 영유아교사의 교직인성을 측정하였다. 현직 영유아교사에게 적합하도록 일부 용어(예, 학생 → 영유아)를 수정하여 활용하였다. 총 3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5점 평정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보편적 인성과 교직인성의 두 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편적 인성은 자기조절(3문항, $\alpha=.84$), 도덕성(8문항, $\alpha=.86$), 사회성(3문항, $\alpha=.77$)의 세 하위 요인으로, 교직인성은 소명의식(6문항, $\alpha=.93$), 학생에 대한 열정(8문항, $\alpha=.93$), 교육적 신념(4문항, $\alpha=.87$)의 세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의 영역, 하위 요인, 문항 내용과 문항 수 및 신뢰도는 <표 2>와 같다. 전체 문항의 Cronbach's α 계수는 .96이다.

<표 2> 교직인성 자기점검 도구의 문항 영역, 하위 요인, 문항 내용, 문항 수 및 신뢰도

영역	하위 요인	문항 내용	문항 수	Cronbach's α
보편적 인성	자기조절	부정적 감정 통제 및 건강한 표현 능력	3	.84
	도덕성	윤리적 기준 준수와 공정성, 비밀 유지 태도	8	.86
	사회성	원만한 협력과 상호작용 유지 능력	3	.77
교직인성	소명의식	교직에 대한 사명감과 책임감 인식	6	.93
	학생에 대한 열정	영유아의 잠재력 존중 및 긍정적 성장 지원	8	.93
	교육적 신념	교사의 역할과 영향에 대한 신념	4	.87
	교직인성(전체)		32	.96

출처: 김경령·서은희(2014: 133)의 표에서 일부 인용

2) 영유아교사 인성 진단 도구

본 연구에서는 김성원과 신정애(2019)가 개발한 ‘영유아교사 인성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영유아교사 인성을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총 32문항, 5개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평정척도로 응답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측정 도구의 하위 요인은 존중(12문항, $\alpha=.90$), 인간관계(8문항, $\alpha=.87$), 배려와 협력(6문항, $\alpha=.86$), 자기조절(3문항, $\alpha=.68$), 성실(3문항, α

=.87)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하위 요인의 문항 내용, 문항 수 및 신뢰도는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전체 문항의 Cronbach's α 는 .95로 나타났다.

<표 3> 영유아교사 인성 측정 도구의 문항 하위 요인, 문항 내용, 문항 수 및 신뢰도

하위 요인	문항 내용	문항 수	Cronbach's α
존중	영유아와 부모를 존중하며 직업적 책임을 다하는 태도	12	.90
인간관계	바른 의사소통과 원만한 관계 유지	8	.87
배려와 협력	타인을 존중하고 협력하는 태도	6	.86
자기조절	감정을 조절하고 인내하는 능력	3	.68
성실	책임감 있게 직무를 수행하는 태도	3	.87
영유아교사 인성(전체)		32	.95

출처: 김성원·신정애(2019: 15)의 표에서 일부 인용

3) 교육활동 만족도 진단 도구

교육활동 만족도는 교사가 교육현장에서 수행하는 직무 중 핵심적인 활동에 대해 지각하는 만족감을 의미하며, 이는 Bloom(2010)이 제시한 직무만족도의 하위 요소인 work itself, 즉 직무 그 자체에서 비롯되는 만족감과 관련된다. 본 연구에서는 Bloom(2010)의 해당 영역 문항 내용을 참조하여, 유아와의 상호작용, 수업 준비 및 실행, 교육과정 운영 등 교사의 실질적인 교육활동을 중심으로 만족도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측정 문항은 유아교육 전문가 1인과 교육학 전문가 1인이 협력하여 교육현장의 실체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정의·구성하였다. 최종 선정된 문항은 ‘교사의 구체적인 직무 이해 만족감’, ‘유아와의 상호작용에서의 즐거움 및 만족감’, ‘현장 교육활동 전반에 대한 만족감’의 세 항목으로 구성되며, 각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 5=매우 그렇다)로 응답하도록 설계되었다. 본 도구의 내적 신뢰도는 Cronbach's α =.72로, 교육활동 만족도를 측정하는데 적절한 수준의 신뢰도를 보였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SPSS 27.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연구 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였으며,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로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영유아교사의 근무 기관에 따른 교직인성과 영유아교사 인성의 차이는 독립표본 t -검정을 통해, 교육경력 및 보유 자격에 따른 차이는 일원분산분석(ANOVA)과 사후검정을 통해 분석하였다. 또한, 교육활동 만족도가 교직인성과 영유아교사 인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든 통계적 검정은 유의수준 $\alpha=.05$ 에서 실시되었다.

III. 연구결과

1. 근무 기관에 따른 교직인성 및 영유아교사 인성 차이

영유아교사의 근무 기관에 따른 교직인성과 영유아교사 인성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독립표본 t -검정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4>와 <표 5>에 제시하였다. <표 4>에 따르면, 교직인성의 하위요인 및 전체 점수에서 어린이집 교사와 유치원 교사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보편적 인성과 도덕성을 제외한 나머지 하위 요인의 평균은 어린이집 교사가 유치원 교사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4> 근무기관 유형에 따른 교직인성 차이

($N=308$)

변 수	어린이집($N=154$)			유치원($N=154$)			t
	M (5점기준)		SD	M (5점기준)		SD	
보편적 인성(영역)	61.46	(4.39)	6.058	61.66	(4.40)	5.103	-.315
자기조절	11.96	(3.99)	1.996	11.70	(3.90)	2.036	1.130
도덕성	36.44	(4.55)	3.555	36.99	(4.62)	2.806	-1.530
사회성	13.06	(4.35)	1.718	12.97	(4.32)	1.519	.527
교직인성(영역)	78.53	(4.36)	8.876	77.63	(4.31)	9.082	.882
소명의식	25.56	(4.26)	3.726	25.01	(4.17)	4.562	1.149
학생에 대한 열정	34.73	(4.34)	4.005	34.39	(4.30)	4.078	.747
교육적 신념	18.24	(4.56)	1.947	18.23	(4.56)	1.717	.062
교직인성(전체)	139.99	(4.37)	14.091	139.29	(4.35)	13.251	.450

반면, <표 5>에서 영유아교사 인성의 하위 요인 중 자기조절에서 어린이집 교사가 유치원 교사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다($t=2.262$, $p<.05$). 그러나 나머지 요인들(존중, 인간관계, 배려와 협력, 성실, 영유아교사 인성 전체)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표 5> 근무기관 유형에 따른 영유아교사 인성 차이

변 수	어린이집(N=154)			유치원(N=154)			t
	M (5점기준)	SD		M (5점기준)	SD		
존중	51.01	(4.25)	5.569	50.58	(4.22)	5.465	.671
인간관계	34.67	(4.33)	3.483	34.19	(4.27)	3.639	1.168
배려와협력	25.75	(4.29)	2.761	25.57	(4.26)	2.661	.588
자기조절	12.55	(4.18)	1.469	12.14	(4.05)	1.697	2.262*
성실	13.56	(4.52)	1.584	13.28	(4.43)	1.398	1.640
영유아교사인성(전체)	137.54	(4.30)	13.287	135.77	(4.24)	13.102	1.175

* $p<.05$

2. 교육경력에 따른 교직인성 및 영유아교사 인성 차이

1) 교육경력에 따른 교직인성 차이

교육경력에 따른 교직인성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일원분산분석(ANOVA)과 사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6>과 <표 7>에 제시되어 있다.

<표 6>에 따르면, 교육경력에 따른 교직인성 평균은 10년 이상 근무한 교사가 가장 높은 평균($M=141.95$)을 보였으며, 3년 미만 교사가 가장 낮은 평균($M=136.74$)을 나타냈다.

<표 6> 교육경력별 교직인성 기술통계

교육경력	3년 미만	3 ~ 5년 미만	5~ 10년 미만	10년 이상	전체
<i>N</i>	58	42	76	132	308
영역 / 하위요인	<i>M</i> (<i>SD</i>)	<i>M</i> (<i>SD</i>)	<i>M</i> (<i>SD</i>)	<i>M</i> (<i>SD</i>)	<i>M</i> (<i>SD</i>)
보편적 인성(영역)	60.76(5.895)	62.00(5.513)	60.51(6.076)	62.38(5.086)	61.56(5.593)
자기조절	12.02(1.915)	11.79(2.078)	11.68(1.968)	11.85(2.084)	11.83(2.017)
도덕성	36.00(3.627)	37.07(3.015)	35.89(3.493)	37.39(2.734)	36.71(3.210)
사회성	12.74(1.671)	13.14(1.491)	12.93(1.676)	13.14(1.602)	13.02(1.619)
교직인성(영역)	75.98(8.947)	78.88(8.512)	76.66(8.677)	79.57(9.092)	78.08(8.976)
소명의식	24.22(4.642)	25.79(3.810)	24.95(3.738)	25.79(4.228)	25.29(4.167)
학생에대한 열정	33.88(3.618)	34.86(3.967)	33.70(4.186)	35.27(4.051)	34.56(4.039)
교육적 신념	17.88(2.009)	18.24(1.620)	18.01(1.922)	18.52(1.736)	18.23(1.833)
교직인성(전체)	136.74 (14.17)	140.88 (12.82)	137.17 (13.976)	141.95 (13.172)	139.64 (13.659)

<표 7>에 제시한 바와 같이, ANOVA 결과, 교직인성 전체($F=3.133$, $p<.05$)와 하위 요인 도덕성($F=4.891$, $p<.01$), 교직인성(영역)($F=3.073$ $p<.05$), 학생에 대한 열정($F=3.189$ $p<.05$)에서 교육경력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반면, 보편적 인성(영역), 자기조절, 사회성, 소명의식, 교육적 신념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사후분석 결과, 10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진 교사는 5~10년 미만 교사 및 3년 미만 교사에 비해 각각 교직인성 전체($p<.05$, $p<.05$)와 주요 하위 요인인 도덕성($p<.01$, $p<.01$), 교직인성(영역)($p<.05$, $p<.05$), 학생에 대한 열정($p<.01$, $p<.05$)에서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다. 특히, 10년 이상의 교사와 3년 미만 교사에 간에는 소명의식($p<.05$)과 교육적 신념($p<.05$)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표 7> 교육경력에 따른 교직인성의 ANOVA와 사후분석 결과

(N=308)

변인	변량원	제곱합 (SS)	자유도 (df)	제곱평균 (MS)	F	사후분석
보편적 인성(영역)	집단간	217.16	3	72.387	2.345	10년 이상>5~10년 미만
	집단내	9384.668	304	30.871		
	전체	9601.828	307			
자기조절	집단간	3.776	3	1.259	.307	
	집단내	1245.445	304	4.097		
	전체	1249.221	307			
도덕성	집단간	145.618	3	48.539	4.891**	10년 이상>5~10년 미만, 3년 미만
	집단내	3017.239	304	9.925		
	전체	3162.857	307			
사회성	집단간	7.719	3	2.573	.981	
	집단내	797.2	304	2.622		
	전체	804.919	307			
교직인성(영역)	집단간	728.092	3	242.697	3.073*	10년 이상>5~10년 미만, 3년 미만
	집단내	24008.879	304	78.977		
	전체	24736.971	307			
소명의식	집단간	117.849	3	39.283	2.291	10년 이상>3년 미만
	집단내	5213.008	304	17.148		
	전체	5330.857	307			
학생에 대한 열정	집단간	152.771	3	50.924	3.189*	10년 이상>5~10년 미만, 3년 미만
	집단내	4855.057	304	15.971		
	전체	5007.828	307			
교육적 신념	집단간	21.438	3	7.146	2.151	10년 이상>3년 미만
	집단내	1009.731	304	3.321		
	전체	1031.169	307			
교직인성(전체)	집단간	1717.784	3	572.595	3.133*	10년 이상>5~10년 미만, 3년 미만
	집단내	55560.931	304	182.766		
	전체	57278.714	307			

* $p<.05$, ** $p<.01$

2) 교육경력에 따른 영유아교사 인성 차이

교육경력에 따른 영유아교사 인성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일원분산분석(ANOVA)과 사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기술통계와 ANOVA 결과는 <표 8>과 <표 9>와 같다. <표 8>에 따르면, 교육경력에 따른 영유아교사 인성 평균은 10년 이상 근무한 교사 집단이 가장 높았으며($M=139.38$), 그다음으로는 3~5년 미만, 3년 미만, 5~10년 미만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5~10년 미만 교사 집단이 가장 낮은 평균 점수($M=133.71$)를 기록하였다.

<표 8>과 <표 9>에 나타난 바와 같이, ANOVA 결과 영유아교사 인성 전체($F=4.010$, $p<.01$)와 하위 요인 존중($F=3.623$, $p<.05$), 인간관계($F=3.373$, $p<.05$), 자기조절($F=3.609$, $p<.05$), 성실($F=4.926$, $p<.01$)에서 교육경력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사후분석 결과, 10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진 교사는 5~10년 미만 교사 및 3년 미만 교사에 비해 각각 영유아교사 인성 전체($p<.05$, $p<.05$)와 주요 하위 요인인 존중($p<.05$, $p<.01$), 인간관계($p<.01$, $p<.05$), 성실($p<.01$, $p<.01$)에서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다. 또한, 10년 이상의 교사는 5~10년 미만 교사에 비해 자기조절($p<.01$)과 배려와 협력($p<.05$)에서도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표 8> 교육경력별 영유아교사 인성 기술통계

교육경력	3년 미만	3~5년 미만	5~10년 미만	10년 이상	전체
<i>N</i>	58	42	76	132	308
하위요인	<i>M(SD)</i>	<i>M(SD)</i>	<i>M(SD)</i>	<i>M(SD)</i>	<i>M(SD)</i>
존중	49.53(5.342)	50.60(4.839)	49.91(5.063)	51.92(5.859)	50.80(5.512)
인간관계	33.88(3.628)	34.55(3.617)	33.63(3.417)	35.10(3.508)	34.43(3.564)
배려와협력	25.34(2.911)	25.79(2.901)	25.22(2.453)	26.02(2.673)	25.66(2.709)
자기조절	12.24(1.615)	12.43(1.364)	11.89(1.484)	12.63(1.673)	12.35(1.598)
성실	13.05(1.538)	13.67(1.459)	13.05(1.557)	13.71(1.390)	13.42(1.498)
영유아교사 인성 (전체)	134.05 (13.672)	137.02 (12.179)	133.71 (12.299)	139.38 (13.364)	136.66 (13.203)

<표 9> 교육경력에 따른 영유아교사 인성의 ANOVA와 사후분석 결과

(N=308)

변인	변량원	제곱합 (SS)	자유도 (df)	제곱평균 (MS)	F	사후분석
존중	집단간	321.966	3	107.322	3.623*	10년 이상>5~10년 미만, 3년 미만
	집단내	9006.148	304	29.625		
	전체	9328.114	307			
인간관계	집단간	125.604	3	41.868	3.373*	10년 이상>5~10년 미만, 3년 미만
	집단내	3773.964	304	12.414		
	전체	3899.568	307			
배려와협력	집단간	37.541	3	12.514	1.717	10년 이상>5~10년 미만
	집단내	2215.342	304	7.287		
	전체	2252.883	307			
자기조절	집단간	26.953	3	8.984	3.609*	10년 이상>5~10년 미만
	집단내	756.875	304	2.490		
	전체	783.828	307			
성실	집단간	31.943	3	10.648	4.926**	10년 이상>5~10년 미만, 3년 미만
	집단내	657.028	304	2.161		
	전체	688.971	307			
영유아교사 인성 (전체)	집단간	2037.006	3	679.002	4.010**	10년 이상>5~10년 미만, 3년 미만
	집단내	51478.513	304	169.337		
	전체	53515.519	307			

* $p<.05$, ** $p<.01$

3. 자격에 따른 교직인성 및 영유아교사 인성 차이

1) 자격에 따른 교직인성 차이

영유아교사가 보유한 자격 유형(보육교사 자격만, 교원자격만, 2개 자격 모두 보유)에 따른 교직인성의 차이를 분석한 일원분산분석(ANOVA)과 사후분석 결과는 <표 10>, <표 11>, <표 12>에 나타나 있다.

자격 유형에 따라 하위요인 ‘도덕성’에서는 유의한 차이($F=3.142$, $p<.05$)가 나타났으나, 교직인성 전체 점수와 다른 하위요인들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사후분석 결과, <표 10>과 <표 11>에 제시된 바와 같이, 교원 자격만 보유한 교사는 보육교사 자격만 보유한 교사에 비해 보편적 인성(영역)($p<.05$), 도덕성($p<.05$), 교직인성(영역)($p<.05$), 학생에 대한 열정($p<.05$), 교직인성 전체($p<.05$)에서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다. 또한, 교원자

격만 소유한 교사와 두 개 자격(교원자격과 보육교사 자격)을 소유한 교사 간의 비교에서는 학생에 대한 열정($p<.05$)과 자기조절($p<.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표 10> 교사 자격별 교직인성 기술통계

자격	보육교사자격만 보유	교원자격만 보유	2개 자격 모두 보유	전체
N	99	35	174	308
영역 / 하위요인	M(SD)	M(SD)	M(SD)	M(SD)
보편적인성(영역)	60.85(6.506)	63.49(4.792)	61.58(5.096)	61.56(5.593)
자기조절	11.92(2.019)	12.46(1.755)	11.66(2.048)	11.83(2.017)
도덕성	36.15(3.845)	37.63(2.713)	36.85(2.845)	36.71(3.210)
사회성	12.78(1.741)	13.40(1.397)	13.07(1.577)	13.02(1.619)
교직인성(영역)	77.39(9.255)	80.89(8.156)	77.91(8.917)	78.08(8.976)
소명의식	25.22(3.708)	26.51(3.600)	25.07(4.486)	25.29(4.167)
학생에 대한 열정	34.24(4.177)	35.94(3.741)	34.47(3.982)	34.56(4.039)
교육적 신념	17.93(2.096)	18.43(1.737)	18.37(1.673)	18.23(1.833)
교직인성(전체)	138.24(14.967)	144.37(12.020)	139.49(13.043)	139.64(13.659)

<표 11> 교사 자격별 교직인성의 사후분석 결과: 변인별 비교그룹 평균차이(I-J)와 유의확률(p)
(N=308)

변인	교원자격만(I) vs. 보육교사자격만(J)	교원자격만(I) vs. 2개 자격 모두(J)	2개 자격 모두(I) vs. 보육교사자격만(J)
	평균차이(p)	평균차이(p)	평균차이(p)
보편적 인성(영역)	2.637*	1.905	.732
자기조절	.538	.802*	-.264
도덕성	1.477*	.778	.699
사회성	.622	.325	.297
교직인성(영역)	3.492*	2.978	.514
소명의식	1.292	1.440	-.148
학생에 대한 열정	1.700*	1.477*	.223
교육적 신념	.499	.061	.439
교직인성(전체)	6.129*	4.883	1.246

* $p<.05$

<표 12> 교사 자격별 교직인성의 ANOVA 결과

(N=308)

변인	변량원	제곱합 (SS)	자유도 (df)	제곱평균 (MS)	F
보편적 인성(영역)	집단간	179.984	2	89.992	2.913
	집단내	9421.844	305	30.891	
	전체	9601.828	307		
자기조절	집단간	19.871	2	9.936	2.465
	집단내	1229.350	305	4.031	
	전체	1249.221	307		
도덕성	집단간	63.843	2	31.922	3.142*
	집단내	3099.014	305	10.161	
	전체	3162.857	307		
사회성	집단간	11.379	2	5.689	2.187
	집단내	793.540	305	2.602	
	전체	804.919	307		
교직인성(영역)	집단간	327.263	2	163.631	2.045
	집단내	24409.708	305	80.032	
	전체	24736.971	307		
소명의식	집단간	60.974	2	30.487	1.764
	집단내	5269.883	305	17.278	
	전체	5330.857	307		
학생에 대한 열정	집단간	78.467	2	39.234	2.428
	집단내	4929.361	305	16.162	
	전체	5007.828	307		
교육적 신념	집단간	13.633	2	6.816	2.043
	집단내	1017.536	305	3.336	
	전체	1031.169	307		
교직인성(전체)	집단간	980.884	2	490.442	2.657
	집단내	56297.830	305	184.583	
	전체	57278.714	307		

* $p<.05$

2) 자격에 따른 영유아교사 인성 차이

보유한 자격 유형(보육교사 자격만, 교원자격만, 2개 자격 모두 보유)에 따른 영유아교사 인성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일원분산분석(ANOVA)과 사후분석을 실시하였다. 기술통계와 ANOVA 및 사후분석 결과는 <표 13>, <표 14>와 <표 15>에 제시되어 있다. <표 13>에 따르면, 자격에 따른 영유아교사 인성 평균은 교원 자격만 보유한 교사가 가장 높았으며 ($M=141.83$), 그 뒤를 이어 2개 자격을 모두 보유한 교사($M=136.05$), 보육교사 자격만 보유한

교사($M=135.90$) 순으로 확인되었다.

<표 13> 교사 자격별 영유아교사 인성 기술통계

자격	보육교사자격만	교원자격만	2개 자격 모두	전체
<i>N</i>	99	35	174	308
하위요인	<i>M(SD)</i>	<i>M(SD)</i>	<i>M(SD)</i>	<i>M(SD)</i>
존중	50.32(5.841)	52.74(5.124)	50.67(5.341)	50.80(5.512)
인간관계	34.22(3.627)	35.89(3.075)	34.26(3.570)	34.43(3.564)
배려와 협력	25.54(2.764)	26.57(2.715)	25.55(2.657)	25.66(2.709)
자기조절	12.47(1.514)	12.83(1.485)	12.18(1.647)	12.35(1.598)
성실	13.34(1.697)	13.80(1.368)	13.39(1.396)	13.42(1.498)
영유아교사 인성(전체)	135.90(14.042)	141.83(12.077)	136.05(12.762)	136.66(13.203)

<표 14> 교사 자격별 영유아교사 인성의 ANOVA 결과

($N=308$)

변인	변량원	제곱합 (SS)	자유도 (<i>df</i>)	제곱평균 (<i>MS</i>)	<i>F</i>
존중	집단간	157.444	2	78.722	2.618
	집단내	9170.670	305	30.068	
	전체	9328.114	307		
인간관계	집단간	83.552	2	41.776	3.339*
	집단내	3816.016	305	12.512	
	전체	3899.568	307		
배려와협력	집단간	32.651	2	16.325	2.243
	집단내	2220.232	305	7.279	
	전체	2252.883	307		
자기조절	집단간	14.693	2	7.346	2.913
	집단내	769.135	305	2.522	
	전체	783.828	307		
성실	집단간	5.846	2	2.923	1.305
	집단내	683.124	305	2.240	
	전체	688.971	307		
영유아교사 인성(전체)	집단간	1057.926	2	528.963	3.076*
	집단내	52457.594	305	171.992	
	전체	53515.519	307		

* $p<.05$

<표 15> 교사 자격별 영유아교사 인성의 사후분석 결과: 변인별 비교그룹 평균차이(I-J)와 유의확률(p)

변인	교원자격만(I) vs. 보육교사자격만(J)	교원자격만(I) vs. 2개 자격 모두(J)	2개 자격 모두(I) vs. 보육교사자격만(J)
	평균차이(p)	평균차이(p)	평균차이(p)
존중	2.420*	2.070*	.349
인간관계	1.663*	1.627*	.036
배려와협력	1.036	1.020*	.016
자기조절	.354	.650*	-.297
성실	.457	.415	.042
영유아교사 인성(전체)	5.930*	5.783*	.147

* $p<.05$

ANOVA 분석 결과, 영유아교사 인성 전체($F=3.076$, $p<.05$)와 하위요인 인간관계($F=3.339$, $p<.05$)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존중, 배려와 협력, 자기조절, 성실 등 다른 하위요인들에서는 자격 유형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표 13>과 <표 15>에 제시된 바와 같이, 사후분석 결과, 교원 자격만 보유한 교사는 보육교사 자격만 보유한 교사에 비해 존중($p<.05$), 인간관계($p<.05$), 영유아교사 인성 전체($p<.05$)에서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다. 또한, 교원 자격만 보유한 교사는 2개 자격을 모두 보유한 교사에 비해서도 존중($p<.05$), 인간관계($p<.05$), 배려와 협력($p<.05$), 자기조절($p<.05$), 영유아교사 인성 전체($p<.05$)에서 유의하게 높은 점수 차이를 보였다.

4. 교육활동 만족도가 교직인성 및 영유아교사 인성에 미치는 영향

교육활동 만족도가 영유아교사의 교직인성과 영유아교사 인성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으로 확인하였으며, 교육활동 만족도와 교사 인성의 하위요인 간 상관관계는 <표 16>에 제시하였다. 전체 교사($N=308$)를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교육활동 만족도는 교직인성($r=.799$, $p<.001$) 및 영유아교사 인성($r=.691$, $p<.001$) 모두와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경력별 분석에서는 3년 미만 집단에서 가장 높은 정적 상관(교직인성 $r=.864$, 영유아교사 인성 $r=.734$)이 나타났으며, 모든 경력 집단에서도 교육활동 만족도와 인성 간의 유의한 정적 상관이 확인되었다. 자격 유형별 분석에서는 모든 집단에서 정적 상관관계가 일관되게 나타났으며, 특히 교직인성(전체)과의 상관($r=.788\sim.804$)이 영유아교사 인성과의 상관

($r=.649\sim.746$)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교육활동 만족도가 교직인성과 영유아교사 인성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교사의 경력과 자격에 따라 집단을 구분하여 각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7>에 제시하였다. 각 회귀분석에서는 교육활동 만족도만을 독립변수로 포함하였기 때문에,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표 16> 경력별/자격별 교육활동 만족도와 교직인성, 영유아교사 인성 하위 요인과의 상관관계

변인		교육활동 만족도						
구분	전체	경력				자격		
		3년 미만	3~5년 미만	5~10년 미만	10년 이상	보육 교사 자격만	교원자격만	자격2개
<i>N</i>	308	58	42	76	132	99	35	174
교직인성(전체)	.799**	.864**	.772**	.741**	.808**	.788**	.795**	.804**
보편적인성(영역)	.622**	.714**	.584**	.596**	.594**	.640**	.581**	.610**
자기조절	.465**	.601**	.509**	.362**	.475**	.520**	.306	.450**
도덕성	.532**	.542**	.503**	.641**	.437**	.570**	.631**	.483**
사회성	.514**	.653**	.433**	.400**	.523**	.533**	.383*	.515**
교직인성(영역)	.829**	.897**	.784**	.776**	.838**	.824**	.831**	.828**
소명인식	.781**	.874**	.766**	.691**	.780**	.706**	.813**	.818**
학생에 대한 열정	.728**	.755**	.733**	.672**	.752**	.800**	.765**	.670**
교육적 신념	.680**	.617**	.524**	.698**	.736**	.796**	.567**	.624**
영유아교사 인성(전체)	.691**	.734**	.691**	.648**	.692**	.746**	.678**	.649**
존중	.642**	.656**	.732**	.640**	.615**	.701**	.667**	.591**
인간관계	.619**	.645**	.567**	.530**	.670**	.672**	.564**	.587**
배려와 협력	.616**	.725**	.525**	.556**	.619**	.687**	.460**	.592**
자기조절	.565**	.670**	.469**	.479**	.585**	.623**	.586**	.530**
성실	.535**	.648**	.451**	.540**	.477**	.649**	.671**	.423**

* $p<.05$, ** $p<.01$, *** $p<.001$

전체교사를 대상으로 한 회귀분석 결과, 교육활동 만족도는 교직인성과 영유아교사 인성 모두에 대해 유의한 예측 변수로 나타났다. 먼저, 교직인성에 대한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F=540.998$, $p<.001$), 교육활동 만족도는 교직인성을 유의하게 예측하였다($\beta=.799$, $p<.001$).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수정된 $R^2=.638$ 로, 교육활동 만족도가 교직인성의 약 64%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유아교사 인성에 대한 분석에서도 회귀모형은 유의하

였으며($F=279.055$, $p<.001$), 교육활동 만족도는 영유아교사 인성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691$, $p<.001$). 모형의 설명력은 수정된 $R^2=.475$ 로, 영유아교사 인성의 약 48%가 교육활동 만족도에 의해 설명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교사의 교육경력에 따라 집단별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든 경력 집단에서 교육활동 만족도가 교직인성과 영유아교사 인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직인성의 경우, 3년 미만 경력 집단에서 표준화계수 $\beta=.864$, $R^2=.746$ 으로 가장 높은 설명력을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10년 이상($\beta=.808$, $R^2=.653$), 3~5년 미만($\beta=.772$, $R^2=.596$), 5~10년 미만($\beta=.741$, $R^2=.549$) 순으로 나타났다. 영유아교사 인성의 경우도 유사한 경향을 보여, 3년 미만 집단($\beta=.734$, $R^2=.538$)이 가장 높았고 이후 10년 이상($\beta=.692$, $R^2=.479$), 3~5년 미만($\beta=.691$, $R^2=.477$), 5~10년 미만($\beta=.648$, $R^2=.420$) 순이었다.

<표 17> 교육활동 만족도가 교직인성 및 영유아교사 인성에 미치는 영향

구분	대상	N	만족도 평균	비표준화 계수 (B)	β (표준화 계수)	t ($p<.001$)	R^2	수정된 R^2	F ($p<.001$)
교직인성(전체)		308	12.94	6.345	.799	23.259***	.639	.638	540.998***
경력	3년 미만	58	12.55	6.661	.864	12.816***	.746	.741	164.242***
	3~5년 미만	42	13.19	6.736	.772	7.677***	.596	.586	58.940***
	5~10년 미만	76	12.82	5.847	.741	9.498***	.549	.543	90.203***
	10년 이상	132	13.09	6.274	.808	15.631***	.653	.650	244.325***
자격	보육교사자격만	99	12.83	6.568	.788	12.611***	.621	.617	159.032***
	교원자격만	35	13.43	6.211	.795	7.54***	.633	.622	56.856***
	2개 자격 모두	174	12.9	6.157	.804	17.748***	.647	.645	315.009***
영유아교사 인성(전체)		308	12.94	5.300	.691	16.705***	.477	.475	279.055***
경력	3년 미만	58	12.55	5.461	.734	8.081***	.538	.53	65.295***
	3~5년 미만	42	13.19	5.728	.691	6.045***	.477	.464	36.542***
	5~10년 미만	76	12.82	4.498	.648	7.318***	.420	.412	53.549***
	10년 이상	132	13.09	5.453	.692	1.935***	.479	.475	119.564***
자격 유형	보육교사자격만	99	12.83	5.832	.746	11.028***	.556	.552	121.618***
	교원자격만	35	13.43	5.319	.678	5.299***	.460	.443	28.077***
	2개 자격 모두	174	12.9	4.865	.649	11.201***	.422	.418	125.466***

*** $p<.001$, 종속변수는 교직인성, 영유아교사 인성, 독립변수는 교육활동 만족도임

교사의 보유 자격에 따른 분석 결과에서도, 모든 집단에서 교육활동 만족도가 교사 인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교직인성에서는 자격 2개 보유 집단이 가장 높은 영향력($\beta=.804$, $R^2=.647$)을 보였으며, 이어 교원자격만 보유 집단($\beta=.795$, $R^2=.633$), 보육교사자격만 보유 집단($\beta=.788$, $R^2=.621$)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영유아교사 인성의 경우에는 보육교사자격만 보유 집단($\beta=.746$, $R^2=.556$)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자격 2개 보유 집단($\beta=.649$, $R^2=.422$)과 교원자격만 보유 집단($\beta=.678$, $R^2=.460$)이 뒤를 이었다.

IV.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영유아교사의 근무 기관, 교육경력과 자격에 따라 교직인성 및 영유아교사 인성과 그 하위 요인에서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지와 교육활동 만족도가 교사의 교직인성과 영유아교사 인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영유아교사의 근무 기관 유형(어린이집 vs. 유치원)에 따른 교직인성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영유아교사 인성의 하위요인인 자기조절에서는 유의미하게 어린이집 교사의 인성 평균이 더 높았다. 이는 보육교사가 갖추어야 할 덕목 3개 중 하나가 자기조절(서희정·신윤승·정선교·성정원, 2018)이기에 유치원보다 어린이집에 더욱 요구되는 인성역량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어린 영유아를 지도하는 교사로서 자기조절 역량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표4>와 <표5>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자기조절이 교직인성과 영유아교사 인성의 하위역량 중 가장 평균이 낮다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교육 강화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어린이집 교사와 유치원 교사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보고한 서현, 임지윤과 박미자(2013)의 연구 결과와 다르다. 해당 연구에서는 유치원교사의 인성이 어린이집 교사보다 높았으며, 5개 하위영역 중 교사의 인간애를 제외한 긍정적 자아개념, 사회관계, 직무수행, 창의인성 요인과 인성 전체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고 보고하였다. 하지만, 이수연(2017)의 연구 기술통계를 살펴보면, 어린이집 교사의 인성이 유치원 교사보다 높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이는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어린이집 교사 중 37.9%(55명)가 유치원교사 자격을 함께 보유하고 있었고, 전체 참여자의 56.5%가 유치원교사 및 보육교사 자격을 모두 소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자격 이중 보유 비율은 근무 기관 유형만으로

인성 차이를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며, 선행연구(서현 외, 2013; 이수연, 2017)와 비교했을 때 자격 요인이 인성에 미치는 영향이 보다 중요하게 작용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둘째, 교육경력이 증가함에 따라 교사 인성 요인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특히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교사들이 대부분의 인성 요인(예: 학생에 대한 열정, 존중, 인간관계, 성실)에서 다른 경력 집단보다 일관되게 높은 인성 수준을 나타냈다. 이는 기존 연구(서현 외, 2013)에서 보고된 바와 같이, 교사가 경력을 쌓아갈수록 전문성, 대인관계 기술, 교직에 대한 책임감이 증가함을 반영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또한, 전홍주 외(2017, 2018)의 연구에서도 보육교사의 교직인성이 10년차 이상과 이하의 교사에게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10년 이상 장기 재직한 교사들의 인성 수준이 높게 나타난 점은, 현장 경험의 축적이 교사로서의 신념과 태도를 내면화하고 실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는 5~10년 미만 경력의 교사들이 대부분 인성 요인에서 낮은 점수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향 - 하향 - 다시 상향’의 인성 변화 패턴은 이수진(2016)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지만, 서현 외(2013)는 1~4년차 교사보다 5~10년차 교사의 인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하여 선행연구 간 차이를 시사한다. 본 연구 결과, 교직 초기(3년 이하) 교사들은 높은 동기와 열정을 보이는 반면, 일정 경력에 도달하면 현실적 어려움으로 인해 교직 인성이 일시적으로 저하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중견 교사(5~10년 차)뿐만 아니라 모든 경력 단계별 지속적 교육 및 직무연수의 필요성을 강조한 김순환과 전셋별(2010)의 주장과도 일치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5~10년 미만 경력 교사가 3~5년 미만 교사보다 인성 평균이 낮고, 영유아교사 인성에서도 모든 경력군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Katz(1972)가 제시한 유아교사 발달 단계 중 ‘갱신(Renewal)’ 단계와 유사하며, 중견 교사들이 직무 부담, 역할 변화, 경력 정체감 등 심리적 요인에 직면하고 있음을 반영한다(심수진, 1998; 이승연, 1993). 이와 관련하여, 선행연구(박지영, 2016; 이영림, 2017; 이승미·윤미숙·조소진, 2023)에서도 현직 교사들이 직무 스트레스, 학부모 및 동료와의 관계, 행정 업무 부담 등 복합적 요인으로 인해 교사 인성의 일부 영역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중견 교사에게 대한 심리적·조직적 지원의 중요성을 시사하며, 경력별로 체계화된 인성 유지 및 회복 프로그램, 맞춤형 연수 및 멘토링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특히 초임 교사에게는 정서 조절과 공감 능력 중심의 기초 인성교육이, 중견 및 고경력 교사에게는 리더십, 교직윤리, 교육철학 중심의 심화 인성교육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교사 자격에 따른 교사 인성의 차이 분석에서는, 유치원교사 자격만 보유한 교사가

보육교사 자격만 보유한 교사에 비해 교직인성과 영유아교사 인성 전체와 도덕성, 학생에 대한 열정, 보편적 인성(영역), 교직인성(영역), 인간관계, 존중 등에서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유치원교사 자격을 보유한(교직이수) 교사가 보육교사 자격(교직미이수)만 보유한 교사보다 교직인성 및 영유아교사 인성에서 높은 점수를 기록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이수연(2017)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이는 유치원교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요구되는 교직과목 이수 및 교원 양성과정이 교사 인성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실제로 ISCED 2011 국제기준과 ISCED-T 2021(UNESCO Institute for Statistics, 2012, 2021)에서도 영유아를 담당하는 교원은 필수적으로 교직과목을 이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내 연구(김은영·권미정·조혜주, 2012) 또한 교사양성 교육과정 내실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보육교사 자격만을 보유한 교사의 경우, 실무 중심의 자격 취득 과정이 인성 함양에는 상대적으로 제한적 작용을 했을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자격 유형 간 교육과정의 구조적 특성이 교사 인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며, 향후 자격 통합 또는 연계 과정에서는 교직인성과 교육적 태도 함양을 위한 공통 교육과정의 체계적 설계가 요구된다. 특히 유보통합 정책 추진에 따라 자격 격차를 해소하고 교육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직무연수와 보수교육을 포함한 현직 교사 대상의 실천 중심 인성교육 강화가 병행되어야 한다. 이는 단순한 자격 통합을 넘어, 유치원 교사와 보육교사를 아우르는 포괄적 인성교육 체계 구축이 교육 현장의 실질적 효과 제고를 위한 핵심 과제임을 시사한다.

넷째, 본 연구는 교사의 교육활동 만족도가 교직인성과 영유아교사 인성에 미치는 영향을 전체 집단뿐 아니라 교육경력 및 자격에 따라 분석하였다. 전체 교사를 대상으로 한 회귀분석 결과, 교육활동 만족도는 교직인성($\beta=.799, p<.001, R^2=.639$)과 영유아교사 인성($\beta=.691, p<.001, R^2=.477$)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교육활동에 대한 주관적 만족감이 교사 인성 형성에 실질적인 요인임을 시사한다. 교사 인성이 단지 개인의 성향에 국한되지 않고, 직무수행 및 조직 환경과 긴밀히 연결된다는 점에서 교육적 함의를 갖는다(남명애, 2021).

경력별 분석에서는 3년 미만 교사 집단이 교직인성($R^2=.746$)과 영유아교사 인성($R^2=.538$) 모두에서 가장 높은 설명력을 보였다. 이는 초임기 교사가 조직 내 긍정적 경험을 통해 인성적 성숙을 이룰 수 있음을 시사하며, Katz(1972)의 ‘생존 단계(Survival stage)’, 즉 초임 교사의 심리적 안정과 지지가 필요한 단계와 부합한다. 반면, 5~10년 미만 교사 집단은 설명력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이는 이 시기 교사들이 직무 정체성 혼란, 역할 갈등, 심리적 소진에 직면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Katz(1972)가 제시한 ‘갱신 단계(Renewal Stage)’에 해당하며, 중견 교사를 위한 직무 재정립과 전문성 강화 지원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10년 이상 경력 교사 집단에서도 교육활동 만족도가 인성에 지속적으로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이옥련, 2024), 장기근속 교사를 위한 동기 유지 및 인성 역량 유지를 위한 체계적 전략이 요구된다(조혜진, 2009).

자격유형별 분석에서는 모든 집단에서 교육활동 만족도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두 개 자격을 보유한 교사 집단은 교직인성($\beta=.804$, $R^2=.647$)에서 가장 높은 설명력을 보여, 자격 취득과정에서의 교육경험이 교사 인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교원자격만 보유한 교사가 보육교사자격만 보유한 교사보다 교직인성 평균이 높았다는 결과는, 교직과목 이수 여부 및 양성과정의 차이가 교사 인성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하며(이수연, 2017), ISCED 2011 및 ISCED-T 2021 국제기준에서도 영유아 교원이 교직과목 이수를 필수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김은영 외, 2012; UNESCO Institute for Statistics, 2012, 2021)과도 맥락을 같이한다.

이러한 결과는 교사 인성교육이 단순한 덕목 훈련에 그치지 않고, 교육활동 만족도, 직무 환경, 조직적 지원을 포함한 종합적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 사용한 교직인성과 영유아교사 인성의 통합적 분석은, 교사 인성을 경력과 자격 특성에 따라 다차원적으로 진단하고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인성교육은 교육활동 경험과 직무환경, 자격과 경력 단계 등을 함께 반영하는 체계적인 접근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다. 근무환경 개선, 동료 간 협력 분위기 조성, 업무 경감 등 직무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제도적 노력이 병행되어야 하며, 경력 단계 및 자격에 따라 차별화된 인성교육 체계 구축과 자기성찰 중심의 전문성 재정립 지원이 이루어질 때, 교사의 인성과 전문성이 지속적으로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실천적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현재 어린이집 교사들이 매년 의무적으로 받는 건강검진(교육부, 2025)처럼, 연 1회 정기적인 인성 진단과 자기성찰 기반의 워크숍 운영이 필요하다. 교사 스스로 자신의 인성을 점검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교사 인성교육을 단기적·일회성 프로그램이 아니라 교사 성장을 핵심 축으로 인식하고, 장기적이며 지속적인 정책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 및 관련 기관은 교사 연수와 자격 유지 체계와 연계하여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제도적 연속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 강경자·정현숙(2024). 예비영유아교사의 학교현장실습과 만족도가 교직인성과 영유아교사 인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원교육연구**, 41(4), 427-454.
- 강은주·이수경(2017). 보육교사의 인성과 행복감 및 직무만족도의 관계. **교육연구**, 2(2), 1-18.
- 강인숙·이희경(2016). 유아교사의 인성과 전문성 발달이 영유아 권리존중 실행에 미치는 영향. **홀리스틱융합교육연구**, 20(4), 49-66.
- 교육부(2014). **교원자격실무편람**. 교육부: 세종
- 교육부(2015). 인성교육진흥법.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67462#0000>
- 교육부(2025). **2025년 보육사업안내(지침)**.
<https://www.moe.go.kr/boardCnts/listRenew.do?boardID=312&m=0301&s=moe>
- 구미향(2017). 유아교사가 갖추어야 할 인성은 무엇인가?. **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 21(2), 127-154.
- 김경령·서은희(2014). 예비교사의 교직 인성 자기점검도구 개발 연구. **한국교원교육연구**, 31(1), 117-139.
- 김근혜(2020). 교육실습 후 예비 유아교사의 모의수업 경험에 대한 의미. **열린유아교육연구**, 25(2), 53-74.
- 김보라·오재연(2022). 유아교사의 인성, 행복감, 공감능력이 유아교사의 놀이지원역량에 미치는 영향. **인문사회** 21, 13(4), 1661-1676.
- 김선희(2017). 유아교사의 인성이 교사-유아 관계 및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서울교육대학교 교육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성원·신정애(2019). 영유아교사 인성 측정도구 개발과 타당화. **육아정책연구**, 13(1), 3-27.
- 김순환·전섫별(2010). 경력에 따른 영아반 교사들의 어려움과 관심사, 현직교육 요구에 관한 고찰. **한국교원교육연구**, 27(3), 239-267.
- 김은설·김길숙·이민경(2015). 영유아교사 인성 평가 도구 개발 및 교육 강화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연구보고** 2015-27.
- 김은설(2016). 영유아교사 인성교육 실태 및 개선 방안. **육아정책포럼**, 48, 6-17.
- 김은영·권미경·조혜주(2012). 교사양성과정 내실화를 위한 유치원과 어린이집 일과운영 및 교사의 직무분석. **육아정책연구소 연구보고** 2012-07.
- 김은자(2023). 보육교사의 교직헌신과 창의적 역할수행, 동료교사의 정서적 지지가 행복플로리시에 미치는 영향. **부모교육연구**, 20(2), 103-124.
- 김하연(2021). 교사의 인성교육 전문성 측정 도구 개발. **교육연구**, 80, 159-183.
- 김향미·김덕선(2016). 유아기 발달 특성에 따른 인성교육덕목에 관한 연구. **한국복지실천학회지**, 7(2), 55-84.
- 김혜금(2024). 유보통합 교사자격 취득과 연수 개편 방향: 유보통합을 통한 영유아 교육의 현재와 미래. **한국유아교육·보육복지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pp.99-126. 11월23일. 청주: 청주대학교

문예관 아트홀.

- 김호순(2016). 영유아 인성교육에 대한 유아교사 인식과 운영실태.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남명애(2021). 보육교사의 인성과 직무 만족도가 영유아권리존중보육 실행수준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수진(2009). 유치원 교사의 교직 윤리의식과 역할 수행정도에 관한 연구. 덕성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주미(2016). 영아교사의 인성 및 놀이교수효능감과 교사-영아 상호작용의 관계. 경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지영(2016). 보육교사의 인성특성과 직무스트레스가 유아인성교육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지혜·도미향(2023). 유아교사의 코칭역량과 전문성이 유아와의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부모교육연구**, 20(1), 47-67.
- 박희숙·김보영(2024). 감사프로그램이 예비유아교사의 감사성향·자아존중감·학습동기·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예비유아교사 인성함양을 위한 감사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인격교육**, 18(1), 169-189.
- 변인화(2019). 어린이집 교사의 인성 및 교수창의성이 교사-영·유아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광주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보건복지부(2023). 2022 아동학대 주요통계.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11010100&bid=0019>에서 2023년 12월 20일 인출
- 서현·임지윤·박미자(2013). 유아교사의 바람직한 인성에 대한 예비유아교사와 현직유아교사의 인식 비교. **한국영유아보육학**, 77, 41-71.
- 서현아·김희정(2019). 보육교사의 교직인성, 교수효능감, 교직윤리의식, 교사역할수행 간의 구조분석. **유아교육연구**, 39(3), 89-114.
- 서현중(2023). 보육교사의 교직 윤리의식 및 정서조절과 영유아 권리존중보육의 관계. 한국교통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희정·신윤승·정선교·성정원(2018). **우리아이를 위한 좋은교사, 좋은 부모되기**. 한국보육진흥원.
- 손봉호(2010). 인성교육의 철학적 기초. 인성교육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한국유아교육·보육 행정학회 동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pp.10-24. 12월 11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서울: 제1지역관.
- 손진희(2008). 인성교육 참여가 청소년의 심리·사회성숙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정애·김성원(2019). 영유아교사의 교사효능감 측정도구 개발과 타당화. **한국보육학회지**, 19(2), 129-143.
- 심정선(2011). 보육교사의 교직윤리 인식과 영·유아권리존중과의 관계. **윤리연구**, 83(1), 283-305.
- 심수진(1998). 유아교사의 관심사에 따른 발달단계와 장학요구와의 관계연구. 덕성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유서연(2021). 보육교사의 인성, 교수효능감, 심리적 소진과 아동학대 잠재성 간의 경로분석 가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유주연·김순환(2015). 유아교사의 통합적 인성함양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육아지원연구**, 10(2), 137-165.
- 윤현정(2021). 영유아교사의 인성과 직무만족도가 교사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귀옥·한수진(2023). 어린이집 교사의 유보통합 교사 자격제도 및 양성과정에 관한 의견 조사. **아동부 모학회지**, 9(1), 61-100.
- 이선우·오재연(2022). 유아교사의 인성, 공감능력, 행복감이 교사-유아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어린이 미디어연구**, 21(3), 1-24.
- 이수연(2017).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사의 인성 및 직무수행 연구. 우석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수진(2016). 유아교사 인성과 교사 역할수행과의 관계. 우석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승미·윤미숙·조소진(2023). 보육교사의 경력과 연령에 따른 어려움과 그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 열린유아교육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pp.309-310. 10월 28일. 한국교통대학교 충북: 국제회의장.
- 이승연(1993). 유아교사 발달단계에 기초한 유치원교사의 관심사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영립(2017). 유아교사의 인성 덕목 실천에 대한 어려움. **생태유아교육연구**, 16(2), 131-156.
- 이옥련(2024). 보육교사의 교직인성과 직무만족도가 영유아 권리존중에 미치는 영향. 동의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용주·조숙영(2020). 인성과 전문성에 대한 경력보육교사의 자기평가와 초임보육교사에 대한 기대 수준 분석. **열린유아교육연구**, 25(1), 241-262.
- 이은정·이소현(2019). 영유아교육기관의 초임교사에게 요구되는 인성과 전문성에 관한 경력교사와 예비교사의 인식. **미래유아교육학회지**, 26(1), 105-123.
- 이현선·이윤진·이일주(2015). 유보통합을 위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사자격 및 양성과정 방안 모색. **포괄영유아·아동교육지원연구**, 3(2), 1-18.
- 이혜진(2019). 유아교사의 인성, 행복감, 공감능력과 교사-유아 상호작용 간의 구조 관계 분석.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혜진·이수경(2020). 유아 교사의 인성, 행복감, 공감 능력과 교사. **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 24(1), 7-42.
- 전재선(2011). 유아교사 인성 자기평가도구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전재선·최종옥(2012). 유아 교사 인성 자기평가도구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보육학회지**, 12(1), 149-174.
- 전홍주·권현조·변길진(2018). 보육교사의 교직윤리의식과 교직인성이 교직전문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영유아보육학**, 110, 33-57.
- 전홍주·권현조·변길진·최규림(2017). 보육교사의 개인변인, 교직윤리의식, 교직인성이 교직전문성에 미치는 영향. 미래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영유아 교육의 방향. **한국육아지원학회 학술대회지**, pp.169-171. 11월 11일. 원광대학교 전북: 60주년 기념관 아스페이스홀.
- 정명자(2016). 유아교사의 인성 및 교사효능감과 행복감간의 관계 분석. 가천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미선·채영란(2023). 유아 교사의 인성과 교직 윤리 의식이 유아 권리 존중 실행에 미치는 영향. **열린 유아교육연구**, 28(6), 293-311.
- 정운경(2015).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사의 인성교육. **교육의 이론과 실천**, 20(2), 77-104.
- 정운경(2017). 교사의 인성과 교양적 교사교육. **한국교육학연구**, 23(4), 53-77.
- 정은경·도미향(2022). 보육교사의 긍정심리자본과 전문성인식이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실행에 미치는 영향. **부모교육연구**, 19(4), 81-101.
- 조경희·변미옥·이종임(2022). 보육교사의 놀이신념 및 전문성이 놀이교수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직무 만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부모교육연구**, 19(1), 85-106.
- 조숙영·이용주(2019). 영유아 교사 인성교육에 관한 연구동향 분석 - 2000년~2017년 국내 학술지를 중심으로-. **열린유아교육연구**, 24(3), 75-95.
- 조숙영·이용주(2023). 보육교사의 인성과 전문성이 아동학대 예방행동에 미치는 주효과와 상호작용 효과. **인문사회** 21, 14(1), 445-458.
- 조운주(2014). 예비유아교사를 위한 교직적성·인성 검사도구의 타당성 및 개선방안. **육아지원연구**, 9(2), 101-123.
- 조운주·최일선(2018). 예비유아교사의 교직인·적성 검사도구(안) 타당화 연구. **육아지원연구**, 13(1), 35-56.
- 조혜진(2009). 보육시설에서 초임교사를 멘토링하는 경력교사의 어려움과 효과적인 멘토링을 위한 중요 요소. **유아교육연구**, 29(5), 21-43.
- 최미곤·황인옥(2016). 보육교사의 인성과 직무만족도가 교사-영유아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 담론과 정책**, 9(2), 169-197.
- 최미정(2010). 창의, 인성교육을 위한 교사교육 모형 개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0(3), 501-526.
- 최은진(2008).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의 직무만족과 자기효능감에 대한 연구. 대전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 최은주(2022). 유아 교사에게 인성교육 실시 및 교육 현장에서의 적용 탐색: Adler 심리학의 주요 개념 중심으로. **인문사회** 21, 13(4), 463-478.
- 최현미(2022). 영유아 교사 인성에 관한 연구 동향 및 관련 요인의 효과성 분석. 중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한국보육진흥원(2017). 마음성장프로젝트. 한국보육진흥원.
- 황선영(2016). 유아교사 인성이 교사역할수행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학논집**, 20(6), 5-24.
- 황해익·김은정(2015). 예비 유아교사의 교직 인성에 대한 주관성 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20(4), 191-219.
- Bloom, P. J.(2010). *Measuring work attitudes in the early childhood setting: Technical manual for the Early Childhood Job Satisfaction Survey and the Early Childhood Work Environment Survey*. Wheeling, IL: McCormick Center for Early Childhood Leadership, National Louis University.
- Katz, L. G.(1972). Developmental stage of preschool teachers. *The Elementary School Journal*, 73(1), 50-54.

KBS(2025). <https://ko.wikipedia.org/wiki> 2025년 2월 11일 접속.

UNESCO Institute for Statistics(2012). *International Standard Classification of Education: ISCED 2011*. UNESCO.

UNESCO Institute for Statistics(2021). *International Standard Classification of Teacher Training Programmes: ISCED-T 2021*. UNESCO.

Abstract

Early Childhood Teachers' Personality: Institutional Type, Teaching Experience, Certification Type, and Educational Activity Satisfaction

Kang, Kyung Ja* · Chung, Hyun Suk**

This study examines differences in teaching character and early childhood teacher personality based on institutional type, teaching experience, and certification, and analyzes the effects of educational activity satisfaction on teacher personality. Data were collected from 308 early childhood teachers in Seoul, Gyeonggi, and Incheon. Using SPSS 27.0, *t*-tests, one-way ANOVA, and regression analyses were conducted. No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found by institutional type, but significant differences emerged by teaching experience and certification. Teachers with over 10 years of experience and those holding only a kindergarten teaching certificate showed higher scores in key personality factors such as morality, enthusiasm for children, respect,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self-regulation. Educational activity satisfaction positively influenced both teaching character and teacher personality, with variations depending on experience and certification. The findings highlight the importance of multidimensional personality assessment and suggest the need for differentiated personality education and tailored training programs focused on personality development in the context of integrated early childhood education systems.

Keywords : teaching character, early childhood teacher personality, experience, certification, satisfaction

* Professor, Depart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Shingu College.

** Professor, Depart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Shingu College.